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대선 평가와 박근혜 당선인 국정운영 전망

2012년 12월 28일

정원철_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I. 대선결과 평가와 박근혜 당선인 국정운영 전망

1. 대선 투표와 선거결과 만족감

-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 만족한다 94.2%

2. 무엇을 보고 투표했나

-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이유, 능력과 경력 > 이념과 공약 > 도덕성 순

3. 투표할 후보 결정시점

4. 유권자 패널들의 선거결과 평가

- 박 당선인 승리 요인, 야권후보 단일화 잘 안돼서 50.1% 박 후보 잘해서 15.4%

5. 유권자 패널들이 본, 박근혜 당선인 국정운영 전망

-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 매우 잘할것 19.1% 대체로 잘할것 53.4%

II. 대선이슈와 대선결과의 영향력

1. 인물요인

- 박근혜 당선인 호감도 5.5점→5.9점

2. 이슈별 영향력

- 이슈 영향력 1위,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 32.9%

3. 이명박 정권 심판론 vs 참여정부 책임론

- 이명박 정권 심판론 공감한다 48.9%, 참여정부 실패론 공감한다 28.1%

4. 미디어 활용과 효과

5. 경제인식

6. 정당지지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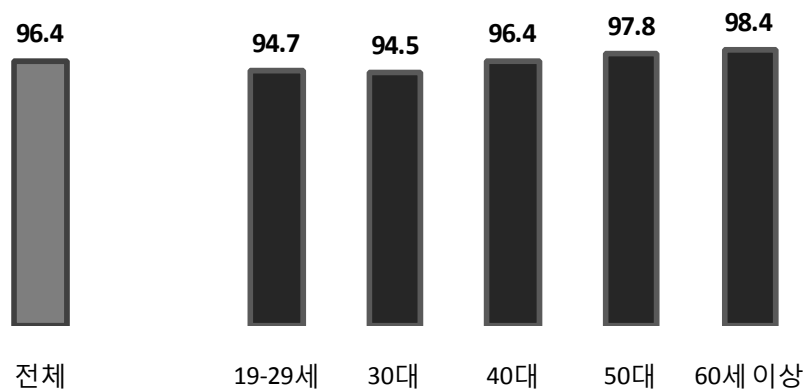


I. 대선결과 평가와 박근혜 당선인 국정운영 전망

1. 대선 투표와 선거결과 만족감

-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 만족한다 94.2%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 만족한다 84.8%
- 18대 대선이 치러진 다음날인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2012 대선패널 5차 조사(이하 5차 조사)에는 유권자 패널 1,355명(패널유지율 67.8%;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7\%$)이 참여하였다.
 - 유권자 패널 중 96.4%가 투표를 했다고 답했으며 3.6%만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였는가에 대해서는 49.7%가 박근혜 후보에게 48.7%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득표율이 51.6%였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8.0%였다는 결과와 비교하면 박근혜 당선인은 1.9% 포인트(p) 낮고 문재인 후보는 0.7% 포인트(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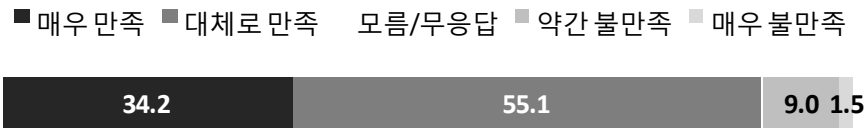
[그림1] 세대별 투표했다고 답한 비율(%)



- 투표한 후보에 대한 만족감을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34.2%였고 대체로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55.1%였다. 별로 만족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과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9.0%와 1.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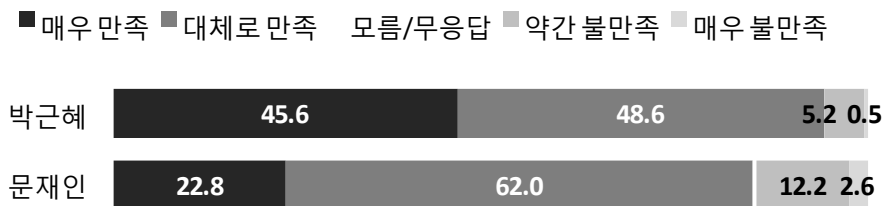


[그림2] 투표한 후보에 대한 만족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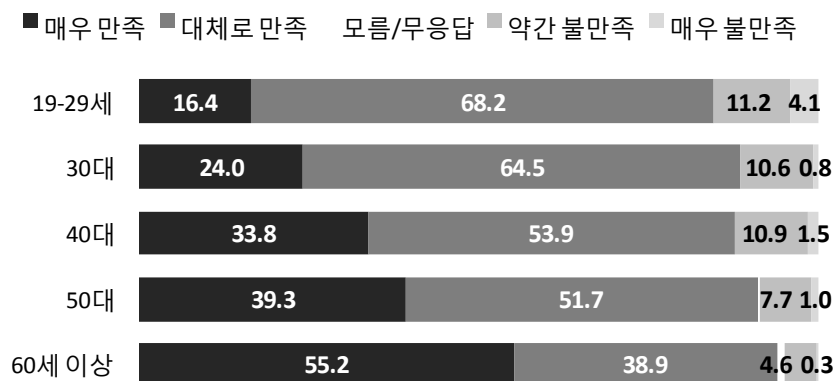
-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과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의 만족감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만족도가 모두 94.2%(매우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한다)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만족도 84.8%(매우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한다)와 비교하여 9.4% 포인트(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3] 투표 후보별 만족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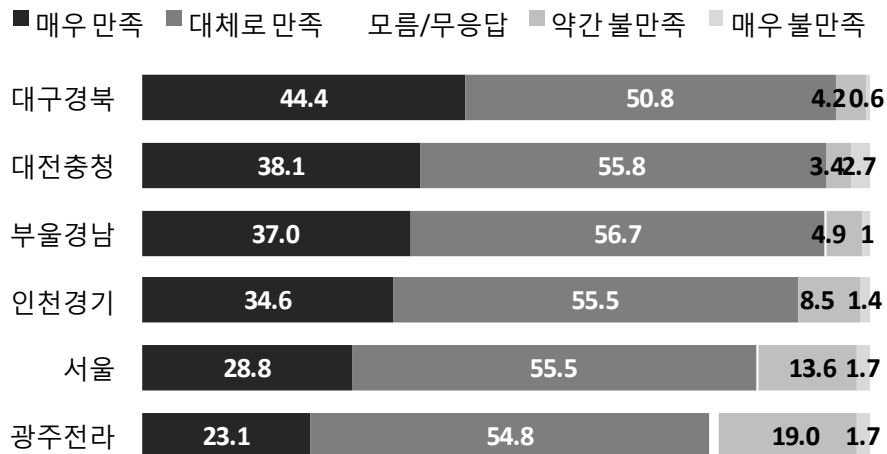
- 세대별 투표한 후보별 만족감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감, 특히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실제 19-29세에서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16.4%에 불과했으나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응답비율이 각각 39.3%와 55.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4] 세대별 투표 후보 만족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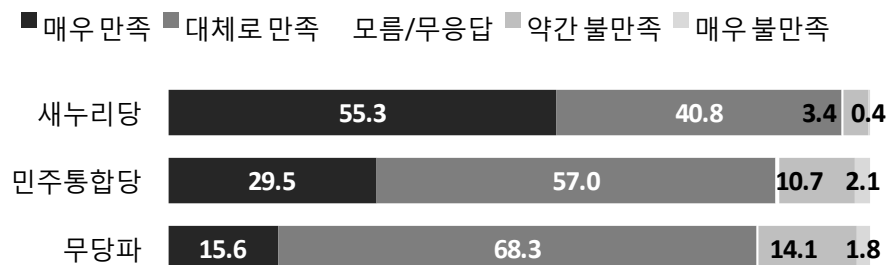
- 거주지역별 투표 후보 만족감 역시 차이가 있었다.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적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4.4%와 38.1%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던 광주/전라와 서울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8.8%와 23.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5] 거주지역별 투표 후보 만족감(%)



- 지지정당별 투표한 후보에 대한 만족감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자 중 55.3%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자 중 29.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무당파(475명, 37.8%)에서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15.6%로 새누리당 지지자나 민주통합당 지지자와 비교해서 낮게 나타났다.

[그림6] 지지정당별 투표 후보 만족감(%)



2. 무엇을 보고 투표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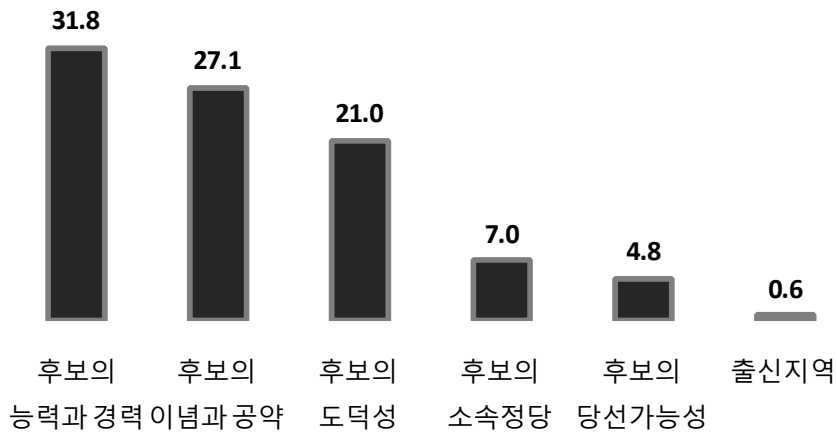
-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이유, 능력과 경력 > 이념과 공약 > 도덕성 순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 이념과 공약 > 도덕성 > 능력과 경력 순
- 17대 대선과 비교, 능력과 경력 49.4%→31.8% 이념과 공약 11.3%→27.1%

- 투표이유를 조사한 결과 후보의 능력과 경력이라고 답한 비율이 31.8%로 가장 높았다. 후보의 이념과 공약을 꼽은 비율은 27.1%였고 후보의 도덕성이 21.0%였다. 소속정당을 꼽은 비율은 7.0%,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4.8% 그리고 출신지역은 0.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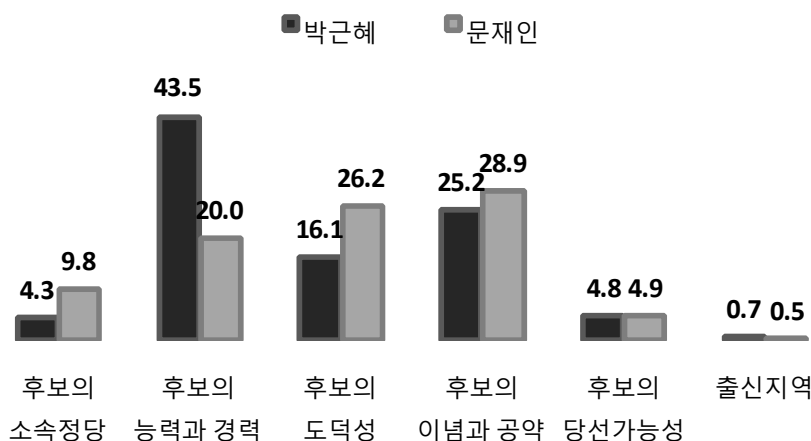
[그림7] 투표이유(% , 1,292명)



주) 기타와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 투표한 후보별로 투표이유를 조사한 결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43.5%는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꼽았다. 이념과 공약을 꼽은 비율은 25.2% 그리고 후보의 도덕성을 꼽은 비율은 16.1%였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28.9%는 후보의 이념과 공약을 그리고 26.2%는 도덕성을 꼽았다.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꼽은 비율은 20.0%였다.

[그림8] 투표후보별 투표이유(%)



- 세대 및 거주지역별 투표이유를 분석한 결과, 우선 세대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는 후보의 이념과 공약을 꼽은 경우들이 각각 38.9%와 36.0%로 가장 높았다. 40대 이상에서는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꼽은 경우들이 다른 이유들에서보다 많았다.
-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그리고 대전/충청이었으며 후보의 이념과 공약은 서울과 인천/경기였다. 광주/전라에서는 후보의 도덕성을 꼽은 비율이 26.3%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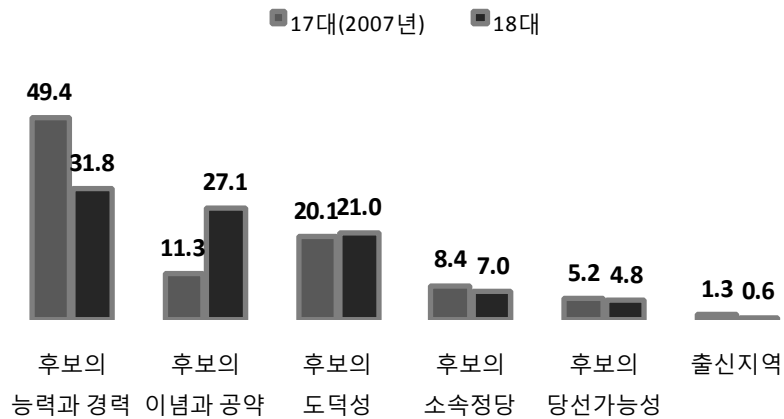
[표1] 세대 및 거주지역별 투표이유(%)

		후보의 소속정당	후보의 능력과 경력	후보의 도덕성	후보의 이념과 공약	후보의 당선가능 성	출신지역
세대	19-29세	9.9	17.6	18.1	38.9	5.8	0.5
	30대	5.8	26.5	16.3	36.0	6.5	0.6
	40대	7.5	31.1	20.6	27.0	4.2	0.7
	50대	6.8	39.9	26.6	19.5	4.3	0.0
	60세 이상	5.4	42.6	23.2	15.1	3.4	1.0
거주 지역	서울	6.2	26.3	20.8	36.7	4.0	0.0
	인천경기	4.4	31.5	16.0	34.2	6.5	0.0
	대전충북충남	3.5	34.2	17.7	25.8	7.1	1.1
	광주전북전남	14.9	23.0	26.3	20.4	5.0	0.4
	대구경북	6.6	41.4	22.2	20.1	3.8	2.0
	부산울산경남	4.7	34.3	22.1	26.5	4.0	0.4

- 이를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서의 조사결과(2007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대선패널 중 대선 후 조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꼽은 비율은 49.4%에서 31.8%로 줄어든 반면 후보의 이념과 공약은 11.3%에서 27.1%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후보의 도덕성을 꼽는 비율은 20.1%에서 21.0%로 차이가 없었다. 이 밖에 소속정당, 당선가능성 그리고 출신지역에 대한 응답비율에서는 차이가 적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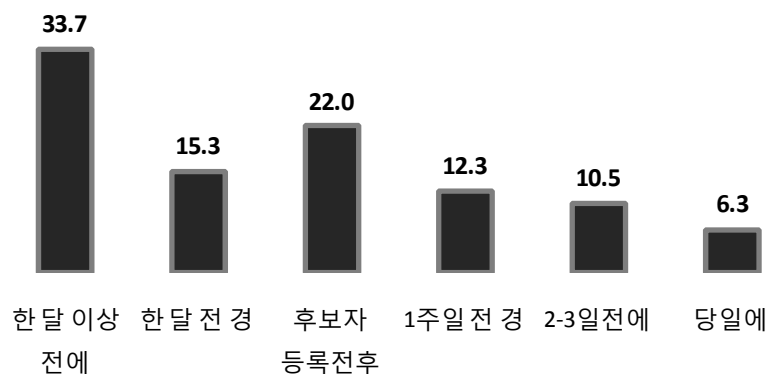
[그림9] 17대-18대 대선 투표이유 변화(%)



3. 투표할 후보 결정시점

-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 한 달 이상 전 39.9%, 2-3일 전 8.3%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 한 달 이상 전 27.8%, 2-3일 전 12.5%
-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시점에 대해서는 한 달 이상 전이라는 응답비율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후보자 등록 전후와 한 달 전 경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22.0%와 15.3%였다. 1주일 전 경은 12.3%였고 2-3일 전과 당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10.5%와 6.3%였다.

[그림10] 투표할 후보 결정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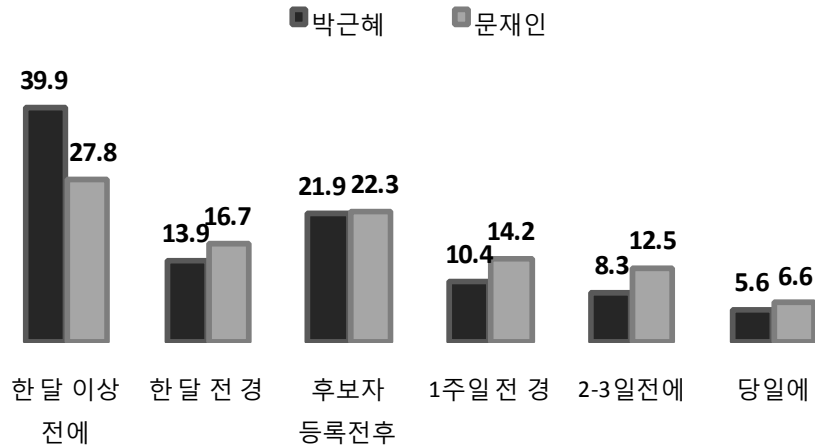


- 투표한 후보별로 후보결정 시점을 살펴보면,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과 비교하여 더 이른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39.9%는 한 달 이상 전에 결정을 하였다고 답하



였으며 한 달 전 경이 13.9% 그리고 후보자 등록전후가 21.9%였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한 달 이상 전이라고 답한 비율은 27.8%였으며 한 달 전 경과 후보자 등록 전후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16.7%와 22.3%였다.

[그림11] 투표한 후보별 결정시점(%)



- 세대와 지지정당별 투표결정 시점을 살펴보면, 우선 세대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찌감치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시점은 한 달 이상 전에가 18.4%였으며 이러한 응답비율은 2-3일 전을 꼽은 비율 18.0%와 차이가 없는 결과다. 30대 역시 한 달 이상 전이라고 답한 비율이 28.3%로 가장 높기는 하였지만 40대 이상에서의 응답비율 35.0%, 50대에서의 35.7% 그리고 60세 이상에서의 49.1%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다.
- 지지정당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도 상대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투표 후보에 대한 결정 시점이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 47.6%가 한 달 이상 전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였다고 답하였지만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서의 응답비율은 33.1%였다. 2-3일 전이라고 답한 비율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자에서의 응답비율은 3.6%였지만 민주통합당 지지자에서의 응답비율은 이보다 높은 9.3%였다.
- 무당파 유권자 패널들의 투표결정 시점은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서보다 더 늦었다. 한 달 이상 전이라고 답한 비율은 20.6%였지만 2-3일 전이라고 답한 비율은 18.1%였다.
- 대선후보 투표결정 시점 조사결과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실시했던 총선2차 패널조사 결과와 비교해서도 좀 더 빨리 표심이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총선 직후 패널조사에서 50대까지는 투표일 2-3일 전에 투표할 후보를 정했다고 답한 비율이 다른 기간보다 높게 나타났고 지지



정당에서도 총선에서보다 이번 대선에서 좀 더 일찍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주요 배경변수별 투표할 후보 결정시점(%)

		한 달 이상 전에		한 달 전 경		후보자 등록전후		1주일 전 경		2-3일 전에		당일에	
		대선 5차	총선 2차	대선 5차	총선 2차	대선 5차	총선 2차	대선 5차	총선 2차	대선 5차	총선 2차	대선 5차	총선 2차
세대	19-29세	18.4	11.1	13.6	6.0	23.7	4.8	15.1	19.1	18.0	43.7	11.2	15.2
	30대	28.3	10.3	14.5	6.5	18.3	12.7	16.1	26.6	12.4	30.6	10.4	13.2
	40대	35.0	18.2	17.1	10.3	24.2	13.3	10.6	22.6	7.9	25.3	5.2	9.8
	50대	35.7	17.8	18.0	6.1	22.5	16.3	12.0	23.3	7.9	26.1	3.9	10.1
	60세 이상	49.1	31.0	12.9	9.7	21.3	14.3	8.2	20.7	7.2	16.2	1.3	7.6
지지정당	새누리당	47.6	24.3	12.5	7.6	23.7	14.3	9.7	22.6	3.6	21.2	2.9	9.4
	민주당	33.1	17.8	18.9	8.5	23.7	12.7	12.0	24.2	9.3	27.6	3.1	8.9
	무당파	20.6	4.3	15.7	4.1	18.2	7.7	15.7	17.3	18.1	44.3	11.7	21.9

4. 유권자 패널들의 선거결과 평가

- 박 당선인 승리 요인, 야권 후보 단일화가 잘 안돼서 50.1% 박 후보가 잘해서 15.4%
- 박 당선인의 승리로 끝난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유권자 패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요인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기대만큼 잘 안돼서의 50.1%였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잘 못해서를 꼽은 비율이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잘해서를 꼽은 비율보다 높았다. 우선 민주당이 잘 못해서를 꼽은 비율은 18.2%였고 문 후보가 잘못해서를 꼽은 비율은 4.7%였다. 반면 박 후보가 잘해서나 새누리당이 잘해서를 꼽은 비율은 각각 15.4%와 1.2%였다.
- 이러한 조사결과를 투표 후보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공통점의 경우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기대만큼 잘 안돼서를 꼽는 비율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에서는 42.6%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에는 57.7%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잘 못해서라는 응답비율 역시 각각 17.3%와 20.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다.
- 차이점은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평가에서였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를 꼽은 비율은 26.5%였지만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에서의 응답비율은 4.6%에 불과했다.



- 세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기대만큼 잘 안돼서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실제 19-29세의 경우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기대만큼 잘 안돼서를 꼽은 비율이 56.0%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를 꼽은 비율은 6.8%로 낮았다. 반면 60세 이상에서의 경우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기대만큼 잘 안돼서를 꼽은 비율은 34.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를 꼽은 비율은 33.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 거주지역에서도 차이는 나타났다. 서울, 인천/경기 그리고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기대만큼 잘 안돼서를 꼽는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를 꼽은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 지지정당에서도 차이는 비교적 분명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를 꼽는 비율이 31.1%로 비교적 높았으나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기대만큼 잘 안돼서를 꼽는 비율이 61.7%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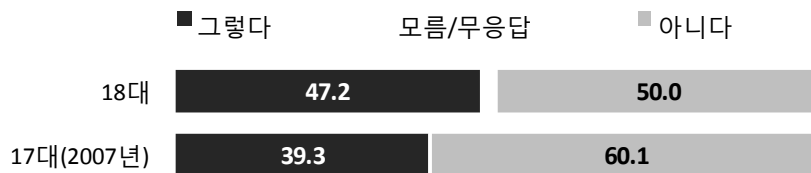
[표3] 선거결과 평가(%)

사례수 (명)	박근혜 후보가 잘해 서	새누리당 이 잘해 서	이명박 대 통령과 정 부가 잘해 서	문재인 후 보가 잘못 해서	민주당이 잘못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기대만큼 잘 안 돼 서	모름/무응 답
전체	15.4	1.2	1.0	4.7	18.2	50.1	9.3
투표							
박근혜	26.5	1.6	1.1	6.2	17.3	42.6	4.7
문재인	4.6	0.7	1.0	2.4	20.1	57.7	13.6
세대							
19-29세	6.8	1.3	0.0	3.9	21.5	56.0	10.4
30대	7.9	1.1	1.7	4.5	17.0	55.4	12.4
40대	10.4	0.4	1.2	3.1	18.0	56.2	10.6
50대	18.6	0.4	0.6	6.1	19.4	48.6	6.1
60세 이상	33.5	2.7	1.4	6.0	15.6	34.2	6.7
거주 지역							
서울	10.8	0.9	1.3	5.1	19.3	53.8	8.7
인천경기	15.5	0.7	1.4	4.5	15.7	53.7	8.5
대전충청	15.8	0.7	0.0	4.2	23.1	47.7	8.5
광주전라	9.7	1.4	0.7	3.2	21.5	49.4	14.1
대구경북	23.6	0.7	1.3	5.8	15.4	46.5	6.8
부울경남	18.4	2.6	0.8	6.2	19.4	43.3	9.3
지지 정당							
새누리당	31.1	1.8	1.4	7.4	16.2	36.6	5.5
민주통합당	7.5	1.1	1.2	2.1	16.9	61.7	9.4
무당파	7.1	0.5	0.5	4.0	19.3	56.9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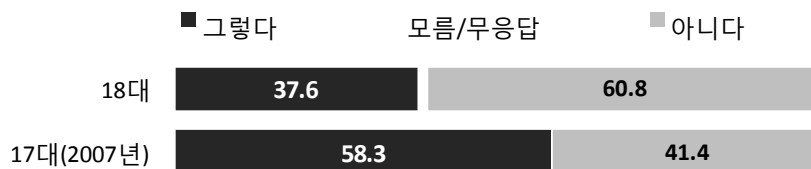
- 정책선거였다 47.2%
 - 지역주의 약화되었다 37.6%
 - 네거티브 선거였다 53.5%
-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 패널들의 평가를 물어보았다. 우선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였는가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47.2%였고 아니었다고 답한 비율은 50.0%였다. 절대적인 수치만을 놓고 보면, 그렇다와 아니라는 평가가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7대 대선패널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정책선거였다고 평가하는 응답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대 대선 직후 패널조사 결과에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39.3%였고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60.1%였다.

[그림12] 정책선거였다는 평가(%)



- 지역주의가 약해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37.6%였고 아니라고 답한 비율이 60.8%였다. 물론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 둘 다 영남권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17대 대선패널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많은 진전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17대 대선에서는 지역주의가 약해졌다고 답한 비율은 58.3%였으나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41.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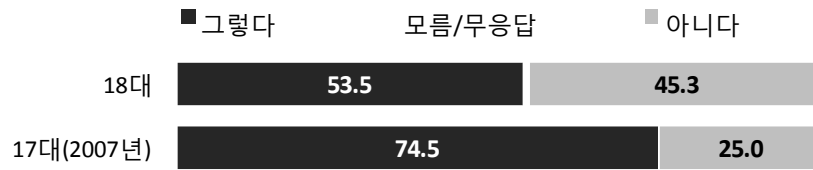
[그림13] 지역주의가 약해졌다는 평가(%)



- 후보 간 비방이 심해졌냐는, 즉 네거티브 선거였냐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53.5%로 아니라고 답한 비율 45.3%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17대 대선패널 조사결과에서 그렇다고 답한 비율 74.5%와 비교하면 일부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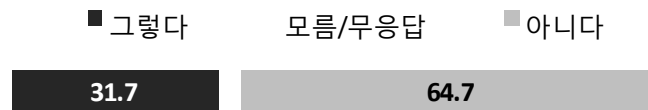


[그림14] 후보 간 비방이 심했는다는 평가(%)



- 정부와 대통령의 선거개입이 심했다는 평가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31.7%였고 아니라고 답한 비율이 64.7%였다. 비교적 관권선거 시비 가능성이 낮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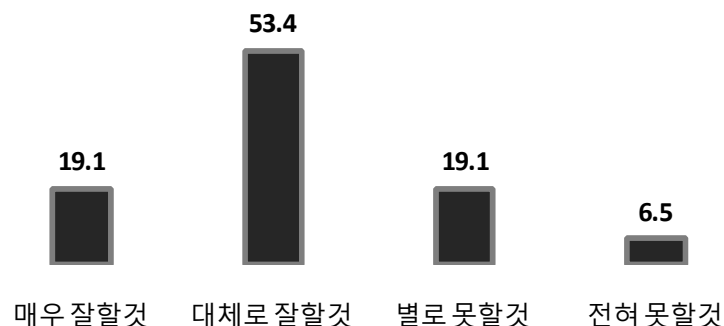
[그림15] 정부와 대통령의 선거개입 심했는다는 평가(%)



5. 유권자 패널들이 본, 박근혜 당선인 국정운영 전망

-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 매우 잘할 것 19.1% 대체로 잘할 것 53.4%
- 세대별 전망 엇갈려, 매우 잘할 것 19-29세 9.6% 60세 이상 36.2%
- 유권자 패널들이 본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 전망에서는 매우 잘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19.1%, 대체로 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53.4%였다. 별로 못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9.1%였고 전혀 못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5%였다. 이로써 긍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모두 72.5%이고 부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25.6%이다.

[그림16] 유권자 패널들의 박근혜 당선인 국정운영 전망



- 투표 후보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선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긍정적인 전망을 압도하고 있었다. 매우 잘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의 응답 비율은 34.0%였지만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에서의 응답비율은 4.7%에 불과했다.
- 세대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19-29세에서 매우 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9.6%였지만 50대에서는 24.7%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36.2%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4] 박근혜 당선인 국정운영 전망(%)

	매우 잘할것	대체로 잘할것	별로 못할것	전혀 못할것
투표 박근혜	34.0	63.4	1.4	0.2
문재인	4.7	42.5	36.9	13.4
세대 19-29세	9.6	43.2	34.6	9.5
30대	9.6	50.8	27.9	9.7
40대	15.4	55.0	18.0	10.1
50대	24.7	60.0	12.0	2.3
60세 이상	36.2	57.7	3.7	0.4

- 집값 전망, 안정될 것 28.5% 오를 것 13.6% 떨어질 것 10.8%

-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의 집권 시기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유권자 패널들에게 전망토록 하였다. 우선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다. 안정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8.5%였고 오를 것으로 또는 떨어질 것으로 답한 비율은 각각 13.6%와 10.8%였다.
- 잘 모르겠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투표 후보별 응답비율의 차이는 분명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의 경우 오를 것으로 전망한 비율과 내릴 것으로 전망한 비율이 각각 6.0%와 6.2%에 불과했다. 45.1%는 안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 그러나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의 경우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21.2%였고 내릴 것으로 전망한 비율이 15.2%였다.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비율은



12.6%에 불과함으로써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의 조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 세대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별 차이가 비교적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오를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안정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표5] 집값 전망(%)

	오를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13.6	28.5	10.8	47.1
투표				
박근혜	6.0	45.1	6.2	42.7
문재인	21.2	12.6	15.2	51.0
세대				
19-29세	29.4	9.5	10.0	51.2
30대	19.2	21.0	13.5	46.3
40대	10.5	25.8	16.1	47.6
50대	5.7	44.1	10.0	40.3
60세 이상	4.1	42.1	3.8	50.0

- 사교육비 부담 전망, 차이가 없을 것 39.8% 줄어듦 22.7% 더 커질 것 17.7%

- 사교육비 부담 전망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비율이 39.8%로 가장 높았다. 줄어듦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22.7%였고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17.7%였다.
- 사교육비 부담 전망에서도 투표 후보별 응답비율의 차이는 비교적 분명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의 경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39.9%였고 줄어듦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32.7%였다.
- 반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답한 비율이 39.4%로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의 조사결과 39.9%와 차이가 없었으나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은 32.4%로 박 당선인에서의 조사결과 4.0%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 세대별 조사결과와 차이도 분명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으나 반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줄어듦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표6] 사교육비 부담 전망(%)

	더 커질 것이다	차이 없을 듯	줄어들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17.7	39.8	22.7	19.8
투표				
박근혜	4.0	39.9	32.7	23.4
문재인	32.4	39.4	12.3	16.0
세대				
19-29세	29.5	38.4	14.2	17.8
30대	29.3	42.1	14.7	13.9
40대	19.2	46.0	17.9	17.0
50대	6.0	44.5	30.3	19.2
60세 이상	4.5	27.5	36.6	31.4

- 경제적 양극화 전망, 현재와 비슷할 것 33.4% 개선될 것 32.0% 악화될 것 21.6%

- 경제적 양극화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33.4%로 가장 높았으며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이 32.0%로 그 뒤를 이었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21.6%였다.
- 대선 투표 후보별로 살펴보면 박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경우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으나 문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에는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41.4%로 가장 높았다.
- 세대별 조사결과에서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높아졌으며 반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높아졌다.

[표7] 경제적 양극화 전망(%)

	개선될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32.0	33.4	21.6	12.9
투표				
박근혜	53.2	29.3	2.4	15.1
문재인	11.3	37.1	41.4	10.2
세대				
19-29세	17.8	27.8	41.8	12.6
30대	20.6	37.0	29.5	12.9
40대	25.9	41.1	23.1	9.9
50대	43.6	34.0	10.8	11.6
60세 이상	52.6	25.9	3.8	17.8



- 노사갈등 전망, 비슷할 것 36.3% 개선될 것 28.9% 악화될 것 20.0%
-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28.9%로 그 뒤를 이었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은 20.0%였다.
- 박 당선인에게 투표한 경우에서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으나 문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에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39.1% 그리고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36.0%로 높았다.
- 세대별 차이 역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이 높아졌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부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이 높아졌다.

[표8] 노사갈등 전망(%)

	개선될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28.9	36.3	20.0	14.8
투표				
박근혜	47.1	33.4	4.5	15.0
문재인	10.9	39.1	36.0	14.0
세대				
19-29세	12.3	38.9	33.2	15.6
30대	18.1	39.0	28.1	14.9
40대	21.9	44.8	23.5	9.7
50대	38.3	36.5	10.7	14.5
60세 이상	54.0	21.9	4.3	19.7

- 남북관계 전망, 비슷할 것 37.8% 개선될 것 25.7% 악화될 것 22.0%
- 남북관계 전망 역시 다른 이슈들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징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비율은 37.8%였고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은 25.7% 그리고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22.0%였다.
- 박 당선인에게 투표한 경우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의 응답비율이 각각 38.7%와 38.2%로 높았으나 문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에는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과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의 응답비율이 각각 37.4%와 36.9%로 높았다.
- 세대별 차이 역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으로 전망한 경우들이 늘어난 반면 연령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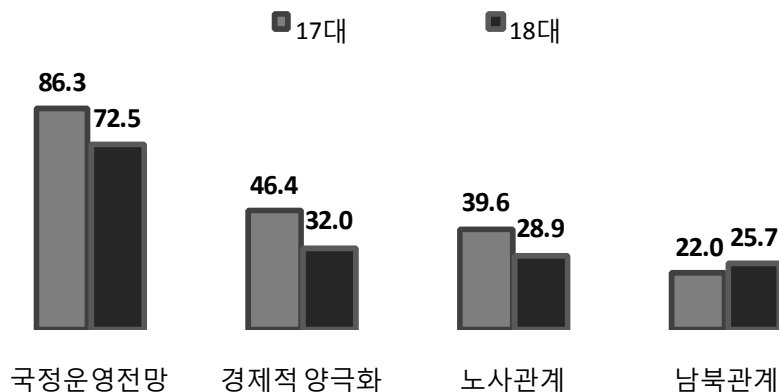
낮아질수록 부정적으로 전망한 경우들이 늘어났다. 실제 19-29세에서는 박근혜 당선인 집권 시기에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은 10.3%였지만 60세 이상에서의 응답비율은 42.9%였다. 반대로 19-29세에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은 36.3%였지만 60세 이상에서의 응답비율은 5.1%에 불과했다.

[표9] 남북관계 전망(%)

		개선될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악화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25.7	37.8	22.0	14.5
투표	박근혜	38.7	38.2	7.5	15.6
	문재인	12.9	37.4	36.9	12.8
세대	19-29세	10.3	37.8	36.3	15.6
	30대	13.6	40.1	31.7	14.6
	40대	22.2	42.6	24.9	10.3
	50대	39.4	35.8	12.3	12.5
	60세 이상	42.9	32.3	5.1	19.7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는가와 더불어 세대별로 개별 주요 이슈에 대한 전망이 엇갈려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7대 대선 직후 실시되었던 패널조사 결과와 비교해서도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 우선 국정운영 전망에 대해서는 17대 조사에서는 유권자 패널의 86.3%가 긍정적으로 답을 하였으며 18대 조사에서는 72.5%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 경제적 양극화와 노사관계에서도 긍정적 응답비율이 10% 포인트(p) 이상 감소하였다. 긍정적 응답비율이 증가한 영역은 남북관계 뿐이었으나 증가폭은 3.7% 포인트(p)에 그쳤다.

[그림17] 17대 18대 대선 직후 영역별 긍정적 평가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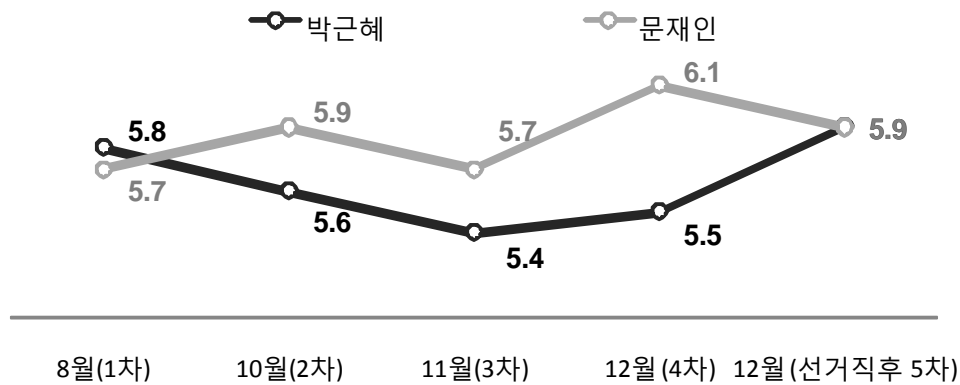
II. 대선이슈와 대선결과의 영향력

1. 인물요인

- 박근혜 당선인 호감도 5.5점→5.9점, 문재인 후보 호감도 6.1점→5.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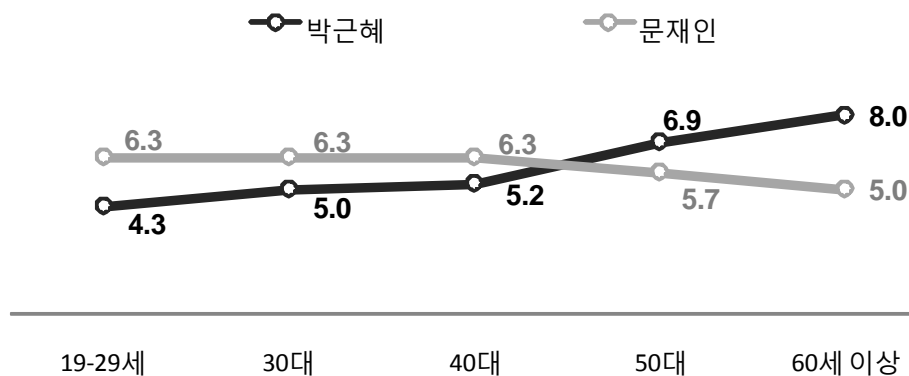
-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 점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 점수와 같은 5.9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감도 점수결과는 선거 직전 조사에서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대선패널 1차 조사가 있었던 8월을 제외하곤 10월, 11월 그리고 대선 직전 패널조사에서는 문 후보의 호감도 점수가 박 당선인을 줄곧 앞섰기 때문이다.

[그림18] 후보별 호감도 변화(점)



- 그렇다고 연령대별 호감도 점수의 분포 자체가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50대 이상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 점수가 높았지만 40대 이하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도 점수가 여전히 박근혜 당선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림18] 연령대별 호감도 변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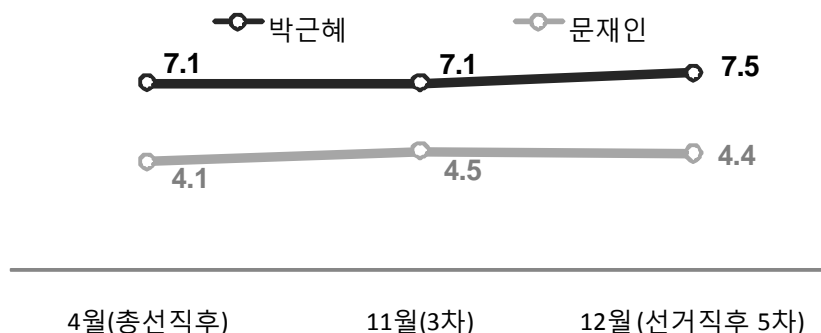
- 국정운영능력에서는 박 당선인, 도덕성과 소통능력에서는 문 후보 평가 여전히 높아
- 호감도 이외에 도덕성, 국정운영능력 그리고 소통능력에 대한 평가를 대선 직전 패널조사 결과와 대선 직후 패널조사 결과로 나누어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 간 비교하여 살펴보면, 두 후보 모두에서 대체로 점수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 호감도 점수에서는 두 후보가 같은 점수를 보였으나 국정운영능력에서는 박 당선인이 그리고 도덕성과 소통능력에서는 문 후보가 여전히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거결과와는 다르지만 인물요인에 있어 문 후보가 박 당선인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10] 인물요인의 변화(점)

박근혜	11월(3차)	12월(선거직후 5차)	문재인	11월(3차)	12월(선거직후 5차)
호감도	5.8	5.9	호감도	5.7	5.9
도덕성	6.0	6.2	도덕성	6.1	6.4
국정운영능력	6.6	6.5	국정운영능력	5.8	6.0
소통능력	5.8	6.0	소통능력	6.0	6.4

- 박 당선인 이념 7.1점에서 7.5점으로 보수 이미지 더욱 강해져
- 후보별 이념평가 점수에서는 대선직후 5차 패널조사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점수는 0점을 매우 진보 그리고 10점을 매우 보수로 하여 7.5점이었다. 유권자 패널들이 박근혜 후보의 이념성향을 그만큼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문 후보의 이념성향은 4.4점으로 중도에 가까운 약간 진보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난 5월 총선 직후 패널조사나 11월 3차 대선패널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박 당선인은 좀 더 보수로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좀 더 중도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19] 후보별 이념평가 점수 변화



2. 이슈별 영향력

- 이슈 영향력 1위,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 32.9%
 - 이정희 후보 TV토론과 후보사퇴는 15.0%
- 이번 대선에서도 이슈들은 제기되었다. 유권자 패널들이 이들 이슈들에 대해 매긴 영향력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가장 커다란 이슈는 응답비율 32.9%를 나타낸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이었다. 이정희 후보 TV토론과 후보사퇴 역시 15.0%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국정원 여직원의 비방댓글 의혹이 세 번째로 나타났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논란, NLL 녹취록 공개논란도 4%대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11] 이슈별 영향력 인식(%)

이슈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	이정희 후보 TV토론과 후보사퇴	국정원 여직원 비방댓글 의혹	박정희 전대통령 친일논란	NLL 녹취록 공개논란
%	32.9	15.0	8.1	4.9	4.4
이슈	새누리당의 구 동교동계인사 및 이회창, 이인제 영입	북한의 로켓발사	박근혜후보 TV토론 시 아이패드 컨닝 의혹	박근혜후보 6억 수수 문제	민주당의 정운찬 전총리, 윤여준 전장관 등 영입
%	4.3	3.8	3.8	1.3	1.3

- 이번 18대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를 하였는가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를 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은 이정희 후보 TV토론과 후보사퇴를 꼽는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을 꼽는 비율이 21.0%로 두 번째로 높았다. 국정원 여직원 비방댓글 의혹을 꼽은 비율은 9.7%였고 NLL 녹취록 공개논란과 박정희 전대통령 친일논란을 꼽은 비율은 각각 5.9%와 2.8%였다.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의 경우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을 꼽은 비율이 44.8%로 가장 높았다. 박정희 전대통령 친일논란과 국정원 여직원 비방댓글 의혹을 꼽은 비율이 각각 7.1%와 7.0%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았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던 이정희 후보 TV토론과 후보사퇴를 꼽는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 세대별로 살펴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을 꺾는 비율이 높았다.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표12] 주요 변수별 이슈별 영향력 인식(%)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	이정희 후보 TV토론과 후보사퇴	국정원 후원 의혹	여직 비방댓글 통령 란	박정희 전대 친일논 공개논란	NLL 녹취록 추적 공개논란
투표	박근혜	21.0	22.4	9.7	2.8	5.9	
	문재인	44.8	6.8	7.0	7.1	2.8	
세대	19-29세	47.9	12.9	6.0	8.7	2.8	
	30대	40.7	15.7	9.8	4.4	2.6	
	40대	35.3	15.2	7.1	4.2	5.1	
	50대	21.9	18.4	8.9	5.3	4.5	
	60세 이상	18.6	12.9	8.4	2.3	6.8	

-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 지지후보 호감 변화 없다 50.3%
- 이정희 후보 TV토론과 후보사퇴, 박근혜 후보 호감 상승 52.0%
- 10개 조사대상 이슈 중 상위 5개 이슈별 영향력이 대선 후보 지지에 미친 영향의 방향, 즉 호감의 상승과 감소 또는 변화 없음에 대해 물어본 결과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우선 안철수 후보의 사퇴 및 문재인 후보지원의 경우 후보 호감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50.3%로 가장 높았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이 상승했다고 답한 비율은 19.8%였지만 동시에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이 11.9%로 조사됨으로써 실질적인 상승비율은 7.9% 포인트(p)였다. 박근혜 당선인의 호감이 상승했다고 답한 비율은 14.4%였고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3.4%로 조사됨으로써 실질적인 상승비율은 11.0% 포인트(p)였다. 문재인 후보의 실질적인 호감 상승비율보다 높은 결과이다.
- 이정희 후보 TV토론과 후보사퇴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이슈였다.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호감이 상승했다고 답한 비율은 52.0%였지만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이 상승했다고 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 국정원 여직원 비방댓글 의혹은 상대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이슈였지만



크기는 작았다. 박근혜 당선인의 호감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26.6%였고 문재인 후보의 호감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22.0%였다.

- 박정희 전대통령의 친일논란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불리한 이슈였다. 박근혜 당선인의 호감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이 54.5%로 과반에 달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이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9%에 불과했기 때문에 파급력은 한계가 있었다.
- NLL녹취록 공개논란은 박근혜 당선인의 호감도 상승에 기여한 이슈였다. 박근혜 당선인의 호감이 상승했다고 답한 비율은 33.9%였지만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23.7%였다.

[표13] 이슈별 영향력의 방향(%)

		박근혜 후보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	후보 호감 변화 없다
		호감 상승	호감 감소	호감 상승	호감 감소	
안철수 후보의 사퇴	명	64	15	88	53	224
및 문재인 후보지원	%	14.4	3.4	19.8	11.9	50.3
이정희 후보 TV토론	명	105	13	5	20	57
과 후보사퇴	%	52.0	6.4	2.5	9.9	28.2
국정원 여직원 비방	명	26	29	4	24	26
댓글 의혹	%	23.9	26.6	3.7	22.0	23.9
박정희 전대통령 친	명	10	36	3	2	15
일논란	%	15.2	54.5	4.5	3.0	22.7
NLL녹취록 공개논	명	20	7	2	14	15
란	%	33.9	11.9	3.4	23.7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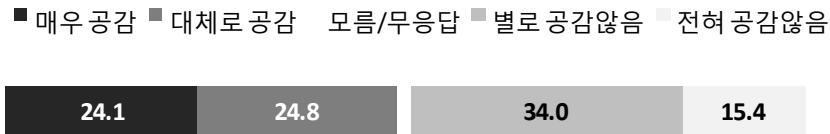
3. 이명박 정권 심판론 vs 참여정부 책임론

- 이명박 정권 심판론 공감한다 48.9%
- 참여정부 실패론 공감한다 28.1%
-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참여정부 책임론이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었고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다. 우선 이명박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이 모두 48.9%(매우 공감한다 24.1%+대체로 공감한다 24.8%)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의 합인 49.4%(전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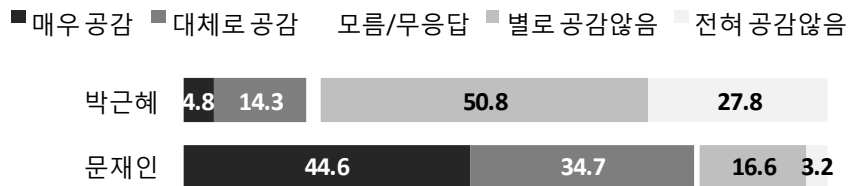
공감하지 않는다 15.4%+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34.0%)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20] 이명박 정권 심판론 공감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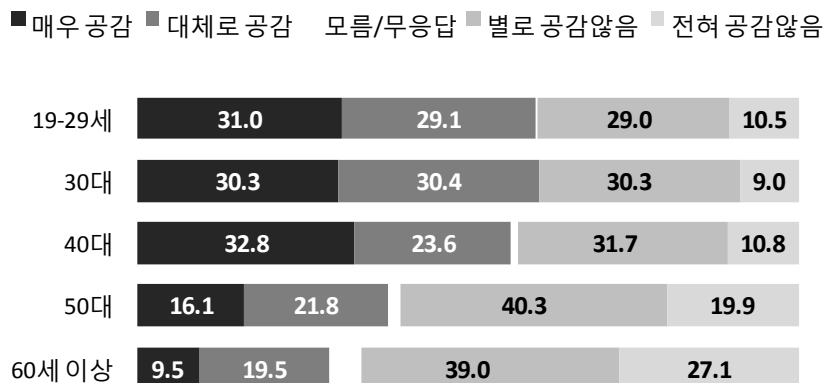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투표 후보별로 살펴보면 차이를 드러낸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경우 매우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이 4.8%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에서의 응답비율은 44.6%로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림21] 투표후보별 이명박 정권 심판론 공감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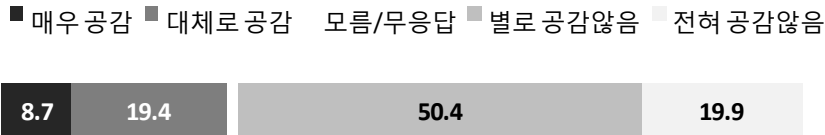
- 세대별 차이도 비교적 선명했다. 40대 이하에서는 이명박 정권 심판론에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이 모두 50%대 이상이였다. 그러나 50대에서는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이 37.9%(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였고 60세 이상에서의 응답비율은 모두 29.0%(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22] 세대별 이명박 정권 심판론 공감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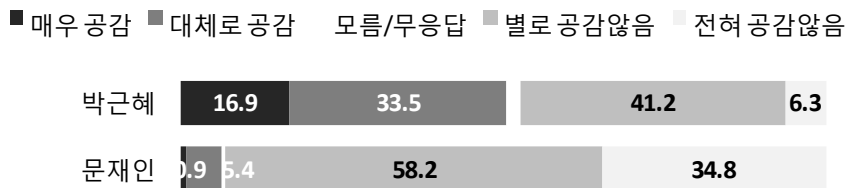
- 참여정부 실패론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28.1%(매우 공감한다 8.7%+대체로 공감한다 19.4%)였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70.3%(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9.9%+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50.4%)였다. 이명박 정권 심판론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공감도가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23] 참여정부 실패 책임론 공감정도(%)



-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를 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 중 참여정부 실패론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50.4%(매우 공감한다 16.9%+대체로 공감한다 33.5%)였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47.5%(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41.2%+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6.3%)였다.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6.3%(매우 공감한다 0.9%+대체로 공감한다 5.4%)였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93.0%(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8.2%+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34.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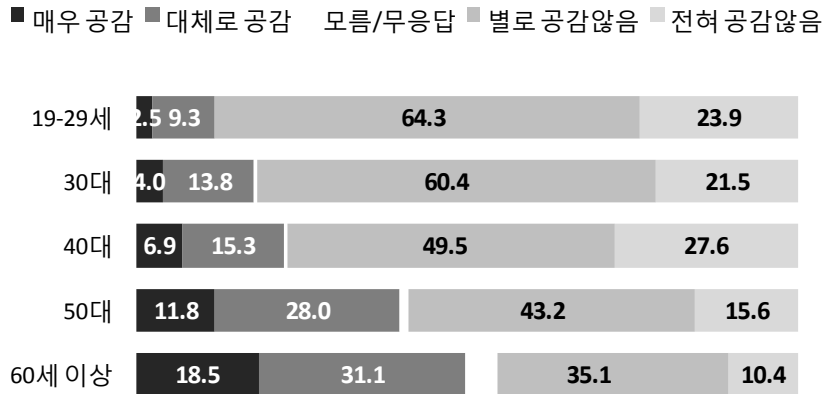
[그림24] 투표 후보별 참여정부 실패론 공감정도(%)



- 세대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감한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19-29세에서 참여정부 실패론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했으나 60세 이상에서의 응답비율은 18.5%였다. 반대로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에서 19-29세는 23.9%였고 60세 이상에서는 10.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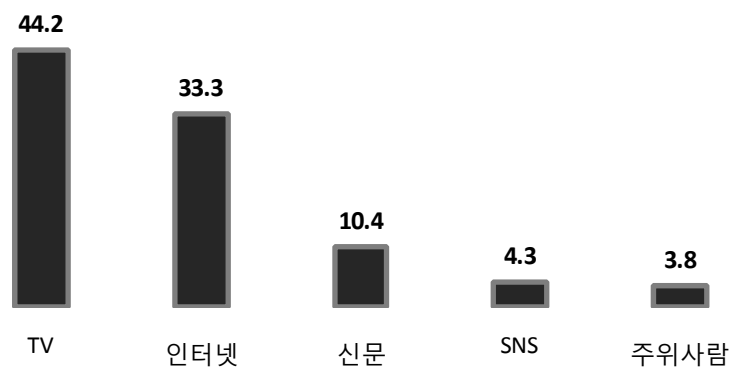
[그림25] 세대별 참여정부 실패론 공감정도(%)



4. 미디어 활용과 효과

- 선거정보, 30대까지는 인터넷 40대 이상에서는 TV
- SNS 응답비율 4.3%
- 선거정보를 얻은 미디어를 조사한 결과 TV라고 답한 비율이 44.2%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이라고 답한 비율은 33.3%였고 신문이라고 답한 비율은 10.4%였다. SNS와 주위사람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4.3%와 3.8%였다.

[그림26] 선거정보 획득 미디어 경로(%)



- 세대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있었다. 30대까지는 인터넷을 꼽는 비율이 높았으며 40대 이상에서는 TV를 꼽는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는 신문을 꼽은 비율(19.8%)이 인터넷을 꼽은 비율(6.8%)보다 높았다. 그러나 50대에서조차 신문을 꼽은 비율은 13.1%로 인터넷을 꼽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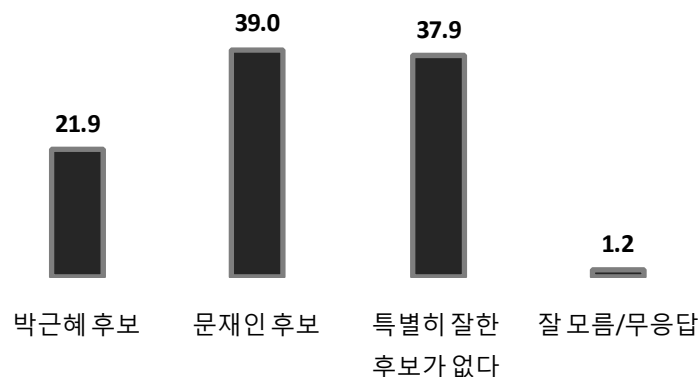
23.8%보다 낮았다. SNS 역시 30대까지에서 5%대를 넘겼을 뿐 다른 미디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표14] 세대별 선거정보 획득 미디어 경로(%)

	TV	인터넷	신문	SNS	주위 사람	기타	라디오	선거 홍보물
19-29세	28.5	53.1	6.4	5.9	4.1	1.6	0.0	0.4
30대	32.4	46.3	4.5	6.7	4.3	3.5	0.8	1.4
40대	41.7	36.9	8.4	4.9	3.7	2.7	1.3	0.3
50대	50.6	23.8	13.1	3.0	3.9	2.8	1.4	1.0
60세 이상	67.0	6.8	19.8	0.6	2.7	1.2	0.9	0.7

- TV 토론, 문 후보 잘했다 39.0% 특별히 잘한 후보 없다 37.9%
- 박 당선인이 TV 토론 잘했다 21.9%
- 이번 대선에서 TV 토론을 시청한 적이 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의 비율은 71.8%(1,204명)이었다. 이들 중 어떤 후보가 잘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문재인 후보라고 답한 비율이 39.0%로 가장 높았다. 특별히 잘한 후보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37.9%였다. 그러나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인을 꼽은 비율은 21.9%였다.

[그림27] TV 토론 시청자(71.8% 1,204명)의 후보 평가



-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가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도 박근혜 당선인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을 잘 했다는 평가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박근혜 후보가 잘했다고 답한 비율은 41.6%였고 특별히 잘한 후보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42.3%였다.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평가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택한 후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고 답한 비율은 63.7%였으며 특별히 잘한 후보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31.8%였다.
- 세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30대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고 답한 비율과 특별히 잘한 후보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40%대 이상으로 높았다. 40대와 50대에서도 박근혜 당선인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고 답한 경우들이 많았다. 박근혜 당선인이 문재인 후보보다 TV 토론을 잘했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세대는 유일하게 60세 이상에서뿐이었다.

[표15] 주요 변수별 TV 토론 시청자(71.8% 1,204명)의 후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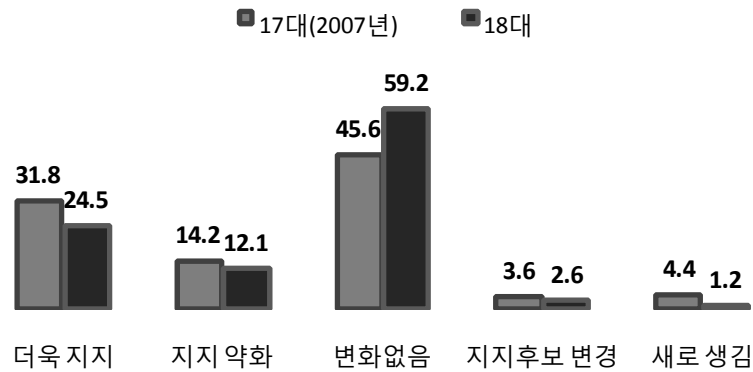
		박근혜 후보가 잘했다	문재인 후보가 잘했다	특별히 잘한 후보가 없다	잘 모름/무응답
투표	박근혜	41.6	14.8	42.3	1.3
	문재인	3.5	63.7	31.8	1.0
세대	19-29세	4.9	48.0	46.5	0.7
	30대	11.2	46.2	41.7	0.9
	40대	16.5	52.4	30.0	1.2
	50대	27.1	31.2	40.7	1.0
	60세 이상	46.5	18.5	32.9	2.1

- TV 토론과 지지후보 지지강도, 변화 없다 59.2%
- 17대 대선에서는 45.6%

- TV 토론이 지지후보에 대한 지지강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변화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59.2%로 지난 17대 대선에서의 45.6%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더욱 지지나 지지 약화에서는 17대 대선과 비교하여 응답비율이 낮아졌다. 지지후보 변경이나 새로 생김에서도 17대 대선과 비교하여 일부 응답비율이 낮아졌다.



[그림28] TV 토론과 지지후보(%)



- TV 토론 시청이 지지후보 지지강도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결과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에 따른 차이도 적었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지지후보 변경이나 새로 생김으로 답한 비율은 각각 2.6%와 0.6%에 불과했다. 변화 없음의 응답비율은 60.4%였다.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유권자 패널들 역시 지지후보 변경이나 새로 생김으로 답한 비율이 각각 2.9%와 1.9%에 불과했다. 변화 없음으로 답한 비율은 57.2%로 박근혜 당선인에게서 나타난 조사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표16] 주요 변수별 TV 토론과 지지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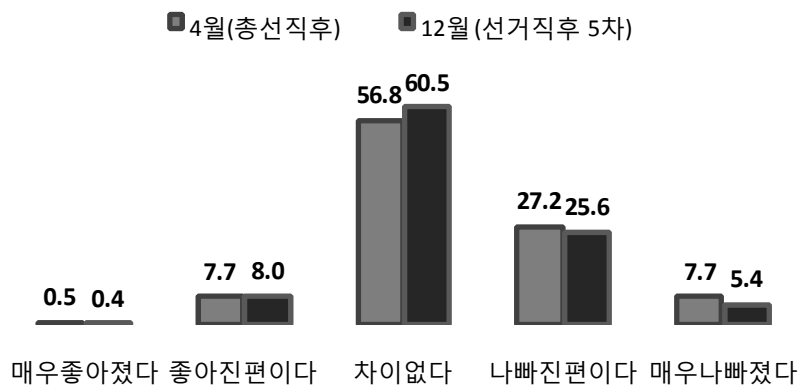
		더욱 지지	지지 약화	변화 없음	지지후보 변경	새로 생김
투표	박근혜	23.0	12.7	60.4	2.6	0.6
	문재인	27.0	10.7	57.2	2.9	1.9
세대	19-29세	19.7	15.1	58.3	5.2	1.7
	30대	21.4	14.4	58.6	3.1	2.3
	40대	24.4	13.6	59.2	1.2	0.4
	50대	24.5	9.3	62.7	2.3	0.7
	60세 이상	31.3	8.4	57.1	1.7	0.9

5. 경제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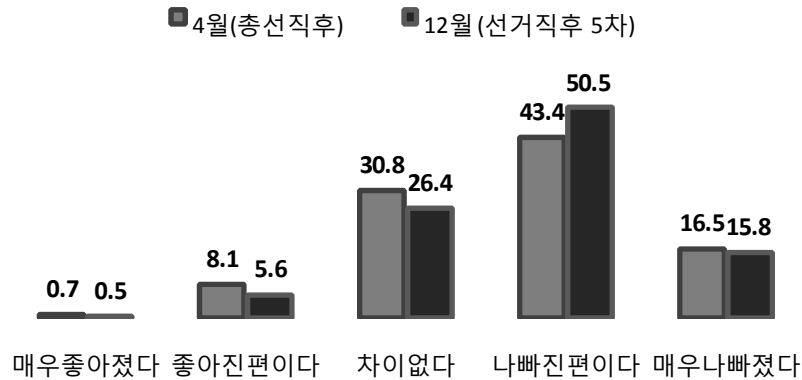
- 가정경제 상황, 매우 좋아졌다 0.4% 좋아진 편이다 8.0%
 - 국가경제 상황, 매우 좋아졌다 0.5% 좋아진 편이다 5.6%
- 경제인식은 통상 선거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여겨진다. 우선 가정경제 상황이 1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단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경우는 차이 없다에서였다. 이번 패널조사에서 차이 없다는 응답비율은 60.5%로 4월 총선 직후 조사에서의 응답비율 56.8%와 차이가 없었다.
 - 이번 5차 조사에서 매우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0.4% 그리고 좋아진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8.0%에 불과함으로서 총선 직후 조사(2차 조사)에서의 응답비율과 차이가 없었다. 그만큼 가정경제 상황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못한 채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유권자 패널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29] 가정경제 상황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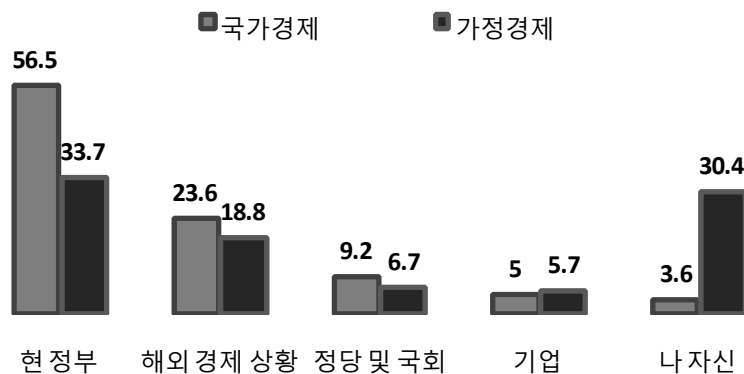
- 국가경제 상황인식의 경우, 나빠진 편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아 50.5%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4월 총선 직후 조사(2차 조사)에서의 응답비율 43.4%보다 오히려 증가한 결과다.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이 26.4%였고 매우 나빠졌다고 답한 비율이 15.8%였다. 결과적으로 유권자 패널들의 대부분이 한국의 국가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 역시 4월 총선 직후 시점과 비교하여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0] 국가경제 상황인식(%)



- 가정경제 책임, 나 자신 > 현 정부 > 해외경제 상황 순
- 국가경제 책임, 현 정부 > 나 자신 > 해외경제 상황 순
- 가정경제와 국가경제 악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공통점에서는 현 정부를 꼽는 비율이 국가경제와 가정경제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해외경제 상황과 정당 및 국회를 꼽는 비율이 차례로 높았다는 점 역시 공통점이다.
- 차이점은 나 자신을 꼽는 비율에서 나타났다. 국가경제에서 나 자신을 꼽는 비율은 3.6%에 불과했지만 가정경제에서의 응답비율은 30.4%로 높았다.

[그림31] 가정경제와 국가경제 악화 책임인식(%)



-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주로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투표 후보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가장 높은 응답비율은 나 자신



이었다. 해당 응답비율은 35.5%였다. 그 다음은 해외경제 상황으로 응답비율은 23.8%였다. 현 정부를 꼽은 비율과 정당 및 국회를 꼽은 비율은 각각 22.0%와 6.4%였다.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생각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과 차이를 보였다. 가장 높은 응답비율은 현 정부였다. 해당 응답비율은 44.4%였다. 나 자신을 꼽은 비율이 24.8%였고 해외경제 상황을 꼽은 비율이 15.3%였다. 정당 및 국회를 꼽은 비율은 7.5%였다.
- 세대별 차이도 나타났다. 나 자신을 꼽는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현 정부를 꼽는 비율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감소하였다. 해외경제 상황은 모든 연령대에서 20% 안팎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우선 새누리당 지지자들에서는 나 자신을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현 정부와 해외경제 상황을 꼽는 비율이 같았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과 무당파에서는 현 정부를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나 자신과 해외경제 상황을 꼽는 응답비율 순이었다.

[표17] 주요 변수별 가정경제 상황 책임인식(%)

	현 정부	정당 및 국회	기업	나 자신	해외경제 상황	모름/무응답
투표 박근혜	22.0	6.4	6.3	35.5	23.8	6.0
문재인	44.4	7.5	5.2	24.8	15.3	2.8
세대 19-29세	37.4	10.3	8.9	24.1	17.3	1.8
30대	38.7	7.2	8.6	21.7	20.7	3.1
40대	37.7	4.2	4.3	29.7	19.7	4.5
50대	26.8	6.1	5.9	33.6	23.2	4.4
60세 이상	25.5	6.3	2.0	40.6	18.3	7.3
지지 새누리당	21.9	6.8	7.4	35.9	21.9	6.2
정당 민주통합당	48.9	6.7	4.4	24.9	11.5	3.6
무당파	32.8	6.8	5.5	29.0	22.5	3.4

-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인식에 대하여 투표 후보별 결과를 살펴보았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에게서도 현 정부라고 답한 비율은 42.0%로 가장 높았다. 해외경제 상황과 정당 및 국회를 꼽은 비율이 각각 33.0%와 10.7%였다.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에서는 현 정부를 끙는 응답비율이 71.3%로 가장 높았다. 해외경제 상황과 정당 및 국회를 끙는 비율이 각각 13.5%와 8.2% 순으로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에서와 결과와 순서가 같았다.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현 정부를 끙는 응답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특히 40대 이하에서의 응답비율이 60%대로 높게 나타났다. 해외경제 상황이나 정당 및 국회를 끙는 비율은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나타났지만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 지지정당별 차이는 비교적 뚜렷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끙는 비율(43.3%)과 더불어 세계경제 상황을 끙는 비율(30.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은 현 정부를 끙는 비율이 71.3%로 해외경제 상황을 끙는 비율 13.8%를 압도했다. 무당파들 역시 현 정부를 끙는 비율이 58.3%로 해외경제 상황을 끙는 비율 23.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표18] 주요 변수별 국가경제 상황 책임인식(%)

	현 정부	정당 및 국회	기업	나 자신	해외경제 상황	모름/무응답
투표						
박근혜	42.0	10.7	6.2	5.8	33.0	2.3
문재인	71.3	8.2	3.8	1.4	13.5	1.9
세대						
19-29세	60.9	12.4	7.5	1.8	17.3	0.0
30대	63.7	8.0	4.3	0.3	22.9	0.8
40대	61.8	7.7	4.4	2.7	22.2	1.1
50대	46.6	9.4	4.3	6.0	30.1	3.6
60세 이상	48.3	8.6	4.9	7.6	25.5	5.1
지지						
새누리당	43.3	11.6	6.5	5.8	30.9	2.0
정당						
민주통합당	71.3	7.0	3.2	2.2	13.8	2.5
무당파	58.3	8.1	4.9	2.9	23.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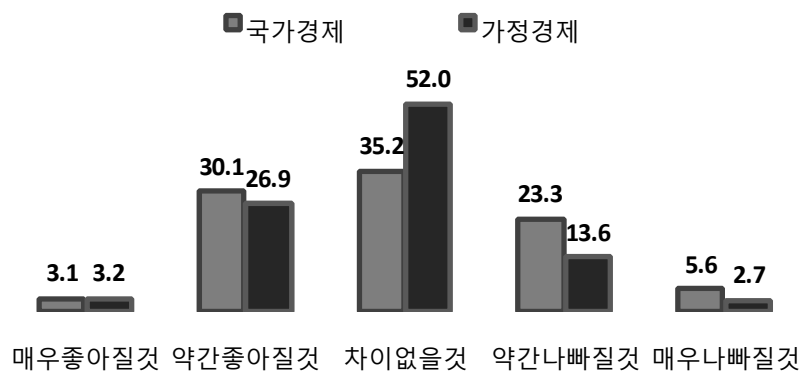
- 가정경제 1년 후 전망, 좋아질 것 30.1% 차이 없을 것 52.0%
- 국가경제 1년 후 전망, 좋아질 것 33.2% 차이 없을 것 35.2%
- 1년 후 전망에서는 국가경제 상황을 가정경제 상황과 비교하여 낙관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국가경제 상황을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모두 33.2%(매우 좋아질 것 3.1%+약간 좋아질 것 30.1%)였고 가정경제 상황을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모두 30.1%(매우 좋아질



것 3.2%+약간 좋아질 것 36.9%)였다.

-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이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과 비교하여 낙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에서 국가경제에 대한 응답비율은 35.2%였지만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응답비율은 52.0%였다.
- 더욱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국가경제에 대한 전망이 가정경제에 대한 전망과 비교하여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국가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유권자 패널들의 비율이 가정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비율보다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32] 가정경제와 국가경제 전망인식(%)



- 가정경제에 대한 주요 변수별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투표 후보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낙관적으로 전망한 응답비율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의 응답비율보다 높았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에서조차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모두 42.8%(매우 좋아질 것이다 4.8%+약간 좋아질 것이다 38.0%)로 과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정경제 전망에 있어 비관적 전망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 세대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30%대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서 40대 이하에서의 응답비율 20%대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연령대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와 나빠질 것이다를 합한 비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 다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전망은 달랐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49.1%(매우 좋아질 것이다 5.6%+약간 좋아질 것이다 43.5%)였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41.4%

였고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한 응답비율은 모두 7.8%(매우 나빠질 것이다 0.9%+약간 나빠질 것이다 6.9%)에 불과했다.

[표19] 주요 변수별 가정경제 전망인식(%)

		매우 좋아질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투표	박근혜	4.8	38.0	46.8	7.0	1.6
	문재인	1.5	15.8	57.0	20.2	4.2
세대	19-29세	2.5	22.3	55.4	18.0	1.4
	30대	3.1	22.1	50.3	19.2	4.6
	40대	2.0	20.7	56.8	15.4	4.3
	50대	3.2	34.0	50.0	10.2	1.3
	60세 이상	5.1	36.3	47.1	5.2	1.6
지지 정당	새누리당	5.6	43.5	41.4	6.9	0.9
	민주통합당	2.5	16.6	58.4	17.2	3.2
	무당파	19.3	20.9	16.0	3.4	19.4

- 국가경제 전망은 가정경제 전망에서보다 결과 값의 차이를 더욱 분명히 했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국가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답한 비율은 모두 50.1%(매우 좋아질 것이다 5.6%+약간 좋아질 것이다 44.5%)였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에서의 응답비율은 모두 16.8%(매우 좋아질 것이다 0.9%+약간 좋아질 것이다 15.9%)에 불과했다.
- 세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비율이 높아졌다. 반대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과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높아졌다. 실제 40대까지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비율은 모두 20%대에 불과했지만 50대 이상에서의 응답비율은 4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국가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답한 비율은 모두 54.1%(매우 좋아질 것이다 6.7%+약간 좋아질 것이다 47.4%)였지만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서의 응답비율은 모두 20.0%(매우 좋아질 것이다 1.0%+약간 좋아질 것이다 19.0%)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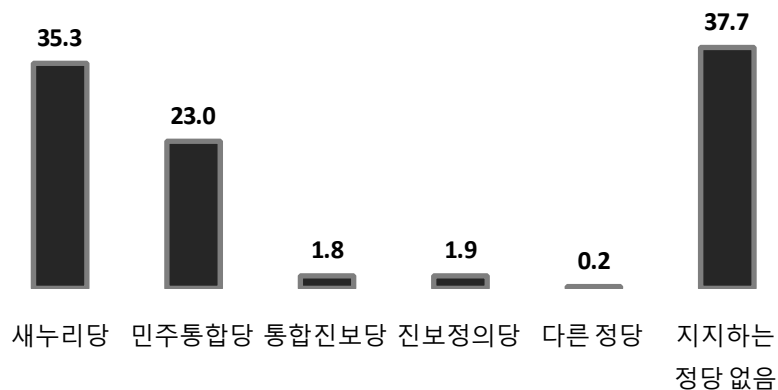
[표20] 주요 변수별 국가경제 전망인식(%)

		매우 좋아질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투표	박근혜	5.6	44.5	30.8	14.4	1.9
	문재인	0.9	15.9	39.1	31.8	9.7
세대	19-29세	1.0	21.0	42.9	26.6	7.1
	30대	2.7	24.5	39.7	23.2	8.7
	40대	2.8	21.9	37.5	28.7	7.9
	50대	3.6	37.3	31.8	22.2	2.1
	60세 이상	5.5	46.3	24.4	15.4	1.9
지지 정당	새누리당	6.7	47.4	29.3	12.2	1.0
	민주통합당	1.0	19.0	44.2	26.5	6.5
	무당파	1.1	22.1	36.0	31.1	7.6

6. 정당지지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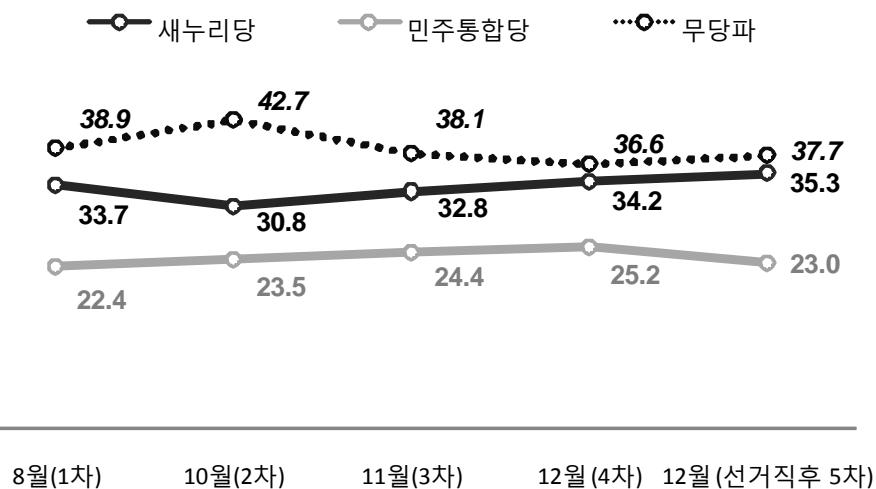
- 지지하는 정당 없다 37.7%
 - 새누리당 지지율 34.2%에서 35.3%로
 - 민주통합당 지지율 25.2%에서 23.0%로
- 정당지지율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35.3%였고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23.0%였다. 다른 정당들의 지지율은 모두 1%대 이하였다. 그러나 가장 높은 응답비율은 지지하는 정당 없음의 37.7%였다.

[그림33] 지지정당(%)



-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에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대선 전 36.6%였던 것과 비교하면 1.1% 포인트(p) 높아졌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8월, 10월 그리고 11월 패널조사에서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아진 결과다.
-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은 대선 전 25.2%와 비교하면 2.2% 포인트(p) 낮아졌다. 그렇다고 경향성이 변화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다. 11월 이전에 진행된 패널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림34] 정당지지율 변화(%)



- 몇 가지 변수별로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았다. 우선 대선투표 후보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67.9%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27.1%로 두 번째로 높았다.
-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패널들 중 가장 높은 응답비율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45.8%였다. 민주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43.2%였다.
- 세대별로 살펴보면, 40대까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50대 이상에서는 새누리당을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전/충청과 대구/경북에서는 새누리당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에서는 민주통합당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새누리당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7.6%와 38.9%로 팽팽하였다.



[표21] 주요 변수별 지지정당(%)

사례수 (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다른 정당	없음
투표 박근혜	67.9	4.1	0.4	0.3	0.1	27.1
문재인	3.4	43.2	3.4	3.8	0.3	45.8
세대 19-29세	12.9	25.3	0.6	1.4	0.4	59.5
30대	22.7	26.3	2.8	3.5	0.0	44.7
40대	27.2	27.8	3.4	4.0	0.3	37.0
50대	49.2	20.2	1.0	0.3	0.0	29.3
60세 이상	64.5	14.7	1.0	0.0	0.3	19.5
거주 서울	30.2	19.8	2.0	1.2	0.7	46.1
지역 인천경기	35.8	16.9	1.9	1.8	0.0	43.6
대전충청	44.6	21.3	1.5	1.7	0.4	30.4
광주전라	13.1	47.6	3.2	1.0	0.0	34.7
대구경북	53.9	10.8	0.5	1.5	0.0	33.3
부울경남	37.6	18.2	1.5	3.8	0.0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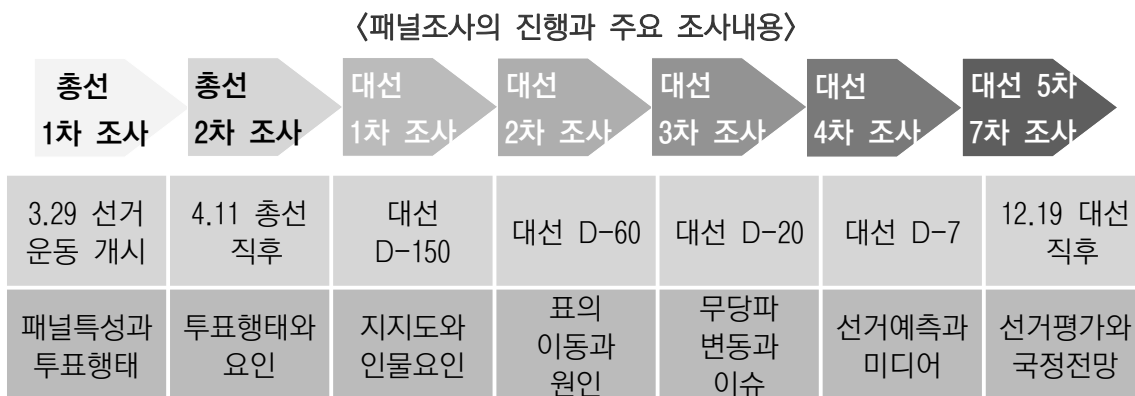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 · 대선 패널조사"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번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AI는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대선패널조사”를 진행한다.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권혁용(고려대) · 김성태(고려대) · 김준석(동국대) · 박원호(서울대) · 박찬욱(서울대) · 서원진(성신여대) · 윤광일(숙명여대) · 이곤수(EAI) · 이우진(고려대) · 이현우(서강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장승진(국민대) · 정원철(EAI) · 정한울(EAI) ·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 오승호 ·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대선5차 패널조사 개요

조사일시	2012년 12월 20 - 22일 (3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355명
표본추출	지역 · 성 · 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 신뢰수준에서 ±2.7%
패널유지율	67.8% (최초 패널 2,000명 기준)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2012 EAI 여론브리핑 시리즈

- 119호 “박근혜 현상 vs 안철수 현상의 충돌 : 지지요인 및 후보 이미지 포지셔닝 맵” 정한울. (2012. 9. 2)
 120호 “새누리당 경선 직후 조사의 주요결과” 정원철 · 이곤수 2012-09-07
 121호 “안 출마 이후 선거구도 변화: 당선가능성은 안철수, 단일후보는 안·문 팽팽” 정한울. (2012. 9. 23)
 122호 “2012 대선2차 패널조사 유권자 지지행태 변동의 크기와 원인” 이곤수 · 정원철. (2012. 10. 21)
 123호 “2012 대선2차 패널조사의 주요결과” 정원철. (2012. 10. 25)
 124호 “세 후보 약점이 공존하는 균형 : 후보등록 한 달 전 대선여론” 정한울. (2012. 10. 28)
 125호 “단일화 파행의 결과 : 부동층 늘고, 안 하락·문 지지강도 약화 ” 정한울. (2012. 11. 18)
 126호 “대선3차 패널조사의 주요결과” 정원철. (2012. 11. 30)
 127호 “야권후보 단일화 이후 유권자 패널의 지지 변동” 이곤수 · 정원철. (2012. 12. 1)
 128호 “대선 4차 패널조사의 주요결과” 정원철. (2012. 12. 17)
 129호 “대선후보 지지 변동의 양상과 원인” 이곤수 · 정원철. (2012. 12. 17)

2012년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 2012-10호. “제18대 대선에서 야권 후보단일화의 전망과 한계” 장승진. (2012. 10. 21)
 2012-11호. “수도권 4대 무당파의 대선경쟁 한 달 평가: 기대와 실망의 공존” (FGD결과 분석) 정한울. (2012. 10. 29)
 2012-12호. “2012 삼국지 최종 승자 결정할 세대변수 점검” 정한울. (2012. 10. 29)
 2012-13호. “안 확장성의 격차 요인과 새누리당 지지층의 역선택 경향 변화” 정한울. (2012. 11. 7)
 2012-14호. “2012 대선 가를 스윙보터(Swing Voter)의 표심은?” 정한울. (2012. 11. 18)
 2012-15호. “2012 대선 여론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정한울. (2012. 11. 18)
 2012-16호. “안철수 사퇴 이후 안철수 지지자의 표심변화” 정한울. (2012. 12. 1)
 2012-17호. “2012 대선 변수 : 박근혜 박빙 우위 지속될까?” 정한울. (2012. 12.10)

2011년 EAI 여론분석 단행본 시리즈

- 여론분석6. 이내영·임성학(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EAI
 여론분석7. 강원택·이내영(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EAI

